

**대한항공,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은 순수 국내기술로 항공기의 모의 비행훈련장치인 '창공-91 시뮬레이터'를 개발, 10월 25일 시제품 발표회를 가졌다.

통상산업부와 공동으로 지난 4년간 총 16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이 시뮬레이터는 항공기의 비행특성을 동일하게 구현, 비행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아울러 이 시뮬레이터에는 '스카이뷰-1'이라는 그래픽 소프트웨어로 창밖의 상황을 재현하였으며 조종사가 비행중 실제로 느끼는 진동과 소음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보 모터'도 설치되었다.

동사는 '창공-91 시뮬레이터' 개발성공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응용폭을 넓혀 자동차, 선박,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을 구축하게 되었다.

**대한항공,
협력생산체제 강화**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지난 11월 5일 항공기 제작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대표들을 초청하여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치공구제작업체(5개사), 부품제작업체(5개사), 소재업체(1개사)등 모두 11개의 주요 협력체가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현재 생산 중인 B737-700, B777, B747, A330, A340의 동체구조물과 확대해 나가고자 함이다. 아울러 앞으로 개발될 중형항공기의 생산에 따른 전문계열화된 생산체제를 확립해 나가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의 내실있는 선진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협력체제 강화차원에서 앞으로도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협력업체들에게 품질 및 기술지원, 탐방지도, 교육지원 그리고 직결자재 100%제공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왔다.

**대우중공업, 무인항공기
본격 생산 추진**

대우중공업이 무인항공기를 개발, 본격적인 생산을 추진한다. 총 1백25억원을 투자해 개발되는 무인항공기는 대우중공업이 기본설계에서부터 최종설계까지를 맡아 시제기 제작에 성공,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우중공업은 이에 따라 현재 시제기를 이용한 선행시험평가를 진행중이며 앞으로 총 6대를 제작해 정부에 납품할 예정이다. 무인항공기는 군용뿐 아니라 환경측정, 기상관측, 농약살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한국기계연구원 항공기
소재부품 공인시험
심포지엄 개최**

한국기계연구원(KIMM)은 12월 15일 창원분원에서 항공기 소재부품 공인시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항공기 소재부품 공인시험체계 확립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항공기 소재부품 공인시험 현황을 진단하고, 선진국의 시험체계를 기

본으로 우리나라의 공인 시험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과 국내 항공기 소재부품 업체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주제가 발표된다.

동 심포지엄 주요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항공기 소재부품업체의 Lockheed 생산인증 획득 경위와 의의(국방부)
2. 항공기 소재부품 품질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공업진흥청)
3. 항공기 부품 품질인증의 현황과 발전방향(항공우주연구원)
4. 항공기 소재 공인시험의 현황과 발전방향(한국기계연구원)
5. 선진국의 품질인증 체계와 사례 연구(Lockheed)
6. 항공기 소재 생산인증 획득 사례 연구(한국로스트와스공업)
7. 중형항공기의 품질인증 체계 구축방안 연구(삼성항공)

■ 금호, 항공기용 타이어 개발 잇따라 성공

(주)금호가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항공기용 타이어를 잇따라 개발, 국내 민항기와 군용기용으

로의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금호는 지난해 6월과 지난 7월 보잉 737용 및 보잉 767용타이어를 개발한데 이어 최근에는 보잉 747용 타이어도 개발에 성공, 이달 중 전문 검사기관인 영국 던롭사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또 정부의 중형 항공기 생산계획이 확정되는대로 국산 중형 민항기용으로 납품할 타이어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용 타이어의 개발도 적극 추진해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F-16 기용타이어를 생산하기 위해 미국 연구소와 본사 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항공기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세계적으로 프랑스의 미셸린과 미국의 굿이어 등 4~5개 업체에 불과하다.

■ 대한항공, 전투기 소음 방지 시설준공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김해공항에 전투기 엔진 성능시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허시 하우스(Hush House)를 준

공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최근 공항주변이 주거지형으로 바뀌면서 소음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전투기 엔진성능시험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소음방지시설을 공사착수 1년만에 준공하게 된 것이다.

동 엔진 소음장비 시설은 320평 규모로 F-15, F-16, F-4등 각종 전투기를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약 25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시설내부는 전면이 소음흡수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제어실과 공기흡입 및 배출시설 그리고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다.

■ 포항공대, 대형 다목적 풍동 준공

포항공대는 한국과학재단 지정 첨단유체공학연구센터(소장이정목)가 제작, 설치한 대형 다



대한항공의 전투기 소음 방지시설 Hush House

목적 풍동 준공식을 11월 8일 개최했다.

풍동의 전체크기는 넓이 14m, 높이가 6m, 길이 37m이다. 개폐식이며 폐쇄된 상태에서 시험부(Test Section)의 크기는 넓이 18m, 높이 15m, 길이 45m이고 최대속도는 75m/초, 최저속도가 5m/초이다.

■ **日항공우주협회, 2개 조사위원회 발족**

일본항공우주협회는 극초음속 민간 수송기개발에 당면한 기술과제의 조사연구를 담당할 2개의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10월에 발족된 초음속 민간수송기 개발조사 위원회는 이미 차세대 항공수송의 주역을 맡을 초음속 민간수송기의 개발을 위하여 앞으로 일본도 본격적으로 국제공동개발에 참여해야 한다는 항공심의회회의 보고에 따라 일본이 담당가능한 분야와 전망 등을 조사하게 된다. 동 위원회는 1996년 3월까지 국제협력구조, 기체에 대한 기술적 여러문제 및 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 우주 상업이용에 관한 조사위원회는 세계의 우주개발이용에 대응한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의 확보 방안과 우주화시대에 대

비한 우주관련연구의 촉진과 조사를 위해 설립발족한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우주와 관련된 선진국과 경쟁국의 기술 및 상업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 **대우중공업, 러시아에 헬기학교 설립**

대우중공업은 지난 11월 1일(水) 러시아 MIL社와 공동으로 모스크바의 대우과학기술연구소(DIST)에 헬기설계학교를 설립하였다.

오는 97년까지 총 200명의 설계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이 학교는 3단계(기초설계기술단계, 세부설계기술단계, 실제 헬기 부품설계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이론강의와 MIL社의 설계국(Design Bureau) 및 생산공장등에서 실습교육이 병행된다.

동 사는 이 헬기설계학교가 러시아의 선진헬기기술 확보를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뿐 아니라 향후 러시아와의 공동설계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헬기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2004년까지 헬기 독자설계 및 자체능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동 사는 MIL社의 설계국에서 30~40년간 근무경력을 가진 설계전문가 30명을 강사로 초빙하여 현재 헬기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60여명의 연구원들에 실무와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日, 마하8의 제트엔진 연소실험 성공**

일본 과학기술청 산하 국가우주연구소와 미쓰비시중공업은 11월 2일 세계 최초로 마하 8의 제트엔진 연소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프랑스가 작년에 기록한 마하7 안팎이 최고속이었다.

본 제트엔진은 스크램제트 방식이고, 물냉각식을 채택했으며 연소시간에서도 시험설비의 최대 시험시간인 약 30초동안의 연속 연소를 달성했다. 도의비행 조건은 고도 2만5천m, 기압은 1기압의 60분의 1로 설정했다.

동 연구소와 미쓰비시는 차세대 초음속 항공기엔진인 스크램제트엔진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마하 4, 올 4월에는 마하 6을 달성했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마하5를 목표로 하는 램과 스크램의 두 엔진을 항공우

주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

스크램제트엔진은 램제트엔진의 하나로 마하8이상을 내는 초고속용 엔진으로 고속비행시 공기를 자동으로 압축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압축기가 필요치 않다.

美방위업체, FSX전자 시스템 평가단 파견키로

휴즈,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등 미국 방위·항공 관련기업 약 30사가 12월에 대일조사단을 파견, 미쓰비시전기가 차세대지원 전투기(FSX)용으로 개발한 통합 전자전시스템에 관해서, 방위·민수 양면에서 대미 기술이전 가능성을 조사한다. FSX에 탑재하는 일본의 독자기술을 평가하는 것은 미국기업이 작년 실시한 고성능레이더 평가후 두번째이다. 미·일 공동개발의 FSX에 관해, 미국측은 일본에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평가임무를 통해 기업차원의 상담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조사단에는 미·일 양국정부의 중개로 휴즈, 로탈 등의 방산 대형사 외에, 항공기탑재 전자기 전문메이커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으로

사실상 무기수출을 금하고 있지만 83년의 미·일 합의에 의해 미국에 한해 무기기술을 공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사단은 비행시험이 시작돼 개발작업이 종반에 다다른 FSX를 미국측이 평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레이더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기업 20여사가 지난해 가을 미쓰비시전기를 방문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이후 웨스팅 하우스와 레이더·모듈의 민생이용을 목표로 하는 상담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MD 로켓부품 상호공급 합의

미쓰비시중공업은 미국 항공우주 대형업체 맥도널 더글러스와 로켓부품의 상호 공급에 합의, 미쓰비시중공업은 맥도널 더글러스의 신형로켓에 연료탱크를 공급하고, 미쓰비시는 일본산 로켓 H2에 부품을 제공키로 했다.

H2의 국제 경쟁력확보를 위해 비용절감을 서두르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신형로켓 개발에 해외 부품 조달을 모색해온 맥도널 더글러스의 의도가 일치한 것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수출하는 것은, 맥도널 더글러스의 신형 로켓 「델타3」의 1단계용 연료탱크

와 2단계용 액체수소탱크 등이며 96년 9월부터 출하한다. 98년에 1호기를 쏘아 올릴 예정으로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계약은 2000년까지 16셋트분으로 15억엔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미쓰비시는 H2의 본체구조용 부품을 MD사로부터 수입한다. 우주개발 사업단의 H2는 성능은 우수한 편이나 약 190억엔에 달하는 발사 비용이, 델타나 유럽의 아리안에 비교해 두배나 되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산업(주)

확장이전('95. 11. 11)

주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1091-1

전화 : (0525)45-8866, 8865, 8861

팩스 : (0525)45-8864

인사

〈 승진 〉 '95. 11. 8

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사장 柳武成